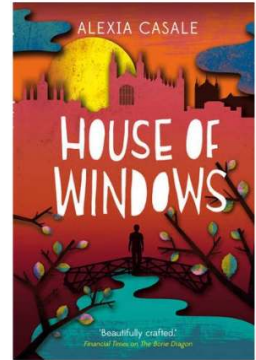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HOUSE OF WINDOWS
가제 : 창문이 가득한 집
저자 : Alexia Casale
출판사: Faber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5년 8월 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일만 아는 아버지의 관심을 갈구하는 외로운 천재 소년, 고단하고 험난한 대학 생활을 시작하다

열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캠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닉.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부르지만 닉은 그런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고, 그런 피나는 노력은 오로지 일 밖에 모르는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얻기 위해 시작한 것이지만 원하는 성과는 얻지 못한 것 같으니 말이다. 닉의 생일날, 두 사람은 닉이 곧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될 캠브리지 근처의 집으로 집을 옮기기로 했지만 아빠는 여전히 일 때문에 바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평소 닉이 아주 싫어하는 자신의 비서를 대신 보내 함께 이삿짐 옮기는 일을 돕게 했다. 집을 다 옮기면 늦게라도 와서 필요한 물건을 같이 사러 가자고 했던 아빠는, 결국 또 일에 발목이 잡혀 오지 못하고, 계리를 보내 그 일까지 대신하게 했다. 계리는 닉을 어릴 때부터 아빠 대신 보살펴준 대부로, 혼자 등교하기 힘든 어린 나이일 때는 항상 교문 밖에 서 있었고 치과에 가야 하는 날에도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다.

집에서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빠는 닉에게 항상 절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생일에도, 아버지는 쉴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통만 붙들고 있다가 느지막한 저녁이 되어서야 비스킷 한 통을 뜯어서 식탁 위에 탐처럼 쌓고는 그 사이에 생일 초를 끼우고 불을 붙였다. 그게 생일 케이크였다. 비스킷 위로 똑똑 떨어지는 양초를 바라보며, 닉은 마음 속으로 대학에서 치를 첫 시험에서 1등하고 친구를 사귀게 해 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양초를 끄자, 아버지는 비스킷 탐을 쓰레기통에 싹 쓸어서 버리고는 안 하느니만 못한 어색한 농담 한 마디를 던지고 다시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쳤다. 그리고 다시 하던 일에 몰두했다.

어린 나이에 입학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열렬결에 들어간 조정 팀, 그 때부터 시작된 대혼란

아들이 집을 떠나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아 보이는 아버지와 달리 홀로 쓸쓸해하며 남들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 캠브리지에 들어간 닉. 하지만 예상대로 학교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학기 중에

는 학교에서 반경 3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학교 규칙에 따라 구한 새 집에서 매일 걸어서 학교를 오가며, 몇 달 만에야 거대한 캠퍼스 곳곳의 지리를 겨우 파악할 수 있었다. 처음 학교 근처로 와서 동네를 둘러보고 학교 안을 구경하며 ‘네가 여기 이 강단에 서서 학생들 가르치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구나.’라고 하던 아빠를 떠올리는 닉. 하지만 공부는 따라가기에 너무 벅창고, 나이 차이가 나는 동기들과 친해지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점점 고립되어 가는 닉에게 어느 날 교수님이 뜻밖의 제안을 한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닉을 걱정하던 고스윈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처럼 스포츠 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해보라고 권하면서, 캠브리지 대학의 가장 핵심 종목인 조정 팀에 닉보다 더 알맞은 사람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마침 조정 팀을 새로 꾸리고 있는데, 타수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고 남들보다 키가 작고 날렵한 체구인 닉이 그 자리에 안성맞춤이라는 설명이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관심도 가져본 일이 없는 조정이라니. 망설이던 닉은 결국 교수님의 설득에 넘어간다. 그리고 그 때부터 닉의 인생에 일대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 늘 혼자 지내는 외로운 소년이 새로운 환경과 사건들을 견디고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통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냉소적이고도 진심 어린 이야기로 풀어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알렉시아 케세일(Alexia Casale)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육학을 공부하고 현재 편집 일을 하면서 교사, 글쓰기 상담사로 활동 중이다. 데뷔 소설인 《THE BONE DRAGON》은 2014년 ‘워터스톤 아동 도서상’ 결승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SECRETS OF VALHALLA

가제 : 발할라의 비밀

저자 : Jasmine Richards

출판사: Harper Collins

발행일: 2016년 2월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사라진 기상캐스터, 외진 숲 속에서 두 아이에게 우연히 발견된 그녀의 놀라운 정체

버즈가 가장 싫어하는 날씨는 13일의 금요일이다. 빨간 속옷을 입으면 운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인터넷 속설도 다 거짓말이었다. 이 흥흥한 날씨 때문인지, 아침부터 버즈의 하루는 온통 엉망진창이었다. 일단 학교에 도착하는 바람에 오후에 축구를 못하게 되었고, 축구 연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일로 다가온 주니어 컵 준결승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벤치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다. 속옷 하나로 나쁜 운이 사라지길 바랬던 자신을 원망하며 힘 없이 점심을 먹는 버즈에게, 낯선 여자 아이가 갑자기 식판을 들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나치게 혈령한 티셔츠에 보라색 거미줄 무늬가 들어간 레깅스를 신고 머리에 기다란 장식용 수술품 수백 개나 늘어뜨린 독특한 외모의 그 소녀가 유유히 버즈에게 다가오자, 학교 식당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당황한 버즈에게 소녀는 이 학교에 전학 올 지도 몰라서 둘러보러 왔다고 버즈에게 학교 안내를 부탁한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식당에 뛰어 들어온 친구 리치마저 불쾌한 소식을 전한다. 누군가 버즈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범인은 평소 버즈와 늘 으르렁대는 테오로 밝혀지고, 버즈는 낯선 여자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 식당에 들어선 테오와 크게 말다툼을 벌인다.

정신 없이 이어진 오후 수업시간, 버즈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에 관해 조사하라는 숙제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큰 야단까지 들어야 했다. 이게 다 아버지가 TV에도 나올 만큼 잘 알려진 신화 교수라 벌어진 일이다. 조금 전 테오와 말싸움에서도 결국 말문이 막히고 만 것도 학교에서 버즈가 벌인 온갖 말썽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치겠다고 테오가 협박했기 때문이고, 그 숙제를 안 했다고 선생님께 다른 아이들보다 더 심한 잔소리를 들은 것도 아버지가 누구보다 유명한 신화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모든 원망을 아버지에게 돌리며, 버즈는 신화는 생각만 해도 진저리 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고대 신화 속에서 단서를 찾아 로키에게 붙들린 수호신들을 찾아 구출하고 세상을 구해야 한다

우울해진 버즈를 식당에서 만났던 낯선 소녀 메리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둘은 금방 좋은 친구가 된다. 그런데 호숫가에서 놀던 버즈와 메리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어떤 여자의 절박한 음성이 들린다.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황급히 사람을 찾아 나선 두 사람. 물가에 줄지은 나무들 중

에서 나무 껍질 색깔이 지금껏 한 번도 본적 없는, 이상한 은빛을 띄는 나무 한 그루가 보이고, 그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높았는데, 거대한 기둥 뒤에 회색 정장을 입은 어떤 여자가 굵은 밧줄에 묶여 있었다. 얼른 달려가 얼굴을 본 순간, 버즈는 깜짝 놀라고 만다. 그녀는 바로 얼마 전 느닷없이 사라져버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TV 기상캐스터 엘레너 브라이트였기 때문이다.

버즈와 메리가 찾아낸 여자는 엘레너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 진짜 정체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 한 사람인 태양의 여신이자 7일의 수호자 중 한 사람으로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신 ‘수나’였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수나가 또 다른 신 로키에게 납치를 당하면서, 세상의 시간은 엉망이 되고 토요일만 무한정 반복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버즈와 메리는 혼란에 빠진 세상을 되돌리고 로키가 세상을 더 큰 암흑 속에 몰고 가기 전, 7일의 수호자들을 모두 구해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러려면 수많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단서를 모아 ‘발할라의 노래’라는 신비한 열쇠를 찾아야 한다. 평소 누구보다 신화를 싫어하던 버즈는 과연 이 막중한 임무를 해낼 수 있을까? 두 사람의 긴박하고 흥미진진한 모험이 시작된다.

<저자 소개>

자스민 리처드(Jasmine Richards)는 옥스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아동 도서 선임 편집자로 일하면서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2012년에는 데뷔 소설인 <<THE BOOK OF WONDERS>>를 발표했다.